

##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 태도 이끌어내기: 내집단 규범 정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심 지 수

김 혜 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설득 주제 관련성에 따라 내집단 규범의 설득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연구1에서 남녀 대학생 참여자들은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지문을 읽은 뒤, 할당된 내집단 유형(남성 내집단vs.여성 내집단vs.대학생 내집단)에 따라 내집단이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 찬성 혹은 중립 태도를 보인다는 정보(도표)를 받았다. 분석 결과, 가설대로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가 주제인 경우 성별 범주가 대학생 범주보다 더 점화되고, 그에 따라 성별 내집단의 규범 정보가 대학생 내집단 규범 정보보다 더욱 영향을 미쳐 참여자들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남성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만 나타난 결과이다. 연구2에서는 연구1의 결과를 반복·확인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 주제에 관하여 관련 내집단의 설득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2에서 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지문을 읽은 뒤, 할당된 내집단 유형(남성 내집단vs.여성 내집단vs.대학생 내집단)에 따라 내집단이 대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 찬성 혹은 중립 태도를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참여자들은 성별 내집단 조건에 비해 대학생 내집단 조건에서 내집단 규범 정보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아 태도를 바꾸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극적 조치의 대상 집단에 따라 효과적인 내집단 규범 정보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이론적 함의를 가질 뿐 아니라 실제 설득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득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내집단 설득 효과, 적극적 조치, 주제 관련성

\* 논문의 일부는 심지수의 아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김혜숙, 아주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E-mail: hsk@ajou.ac.kr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소수집단의 권리와 그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차별을 당하던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수집단 구성원들 또한 소수집단 구성원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소수집단 구성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인 적극적 조치는 과거부터 누적된 차별 해소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차별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장지연, 2006). 적극적 조치는 영어로 'Affirmative Action' 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로 칭하고 있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 구조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문미경, 김복태, 정수연, & 류도암, 2013). 하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익들의 상충 등의 이유로 인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반 태도가 대립하고 있고(장지연, 2006),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 2015년 가스안전공사 채용에서 박기동 전 사장이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며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여성의 가스도관 업체의 근무 경력을 다른 분야의 회사 경력으로 분류하여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로 인해 당시 합격권의 여성 7명이 불합격으로, 불합격권의 남성 13명이 합격으로 처리 되었다(최종권, & 김민욱, 2017). 또한 2015년 동그라미 재단에서 발표한 '기회균등지수연구'를 보면 소득 상위 10%의 학생들이 명문대에 갈 확률은 소득 하위 10%의 학생들보다 5배나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중상위권 학생들을 포함하더라도 약 3배 정도로, 그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처럼 공기업에서조차 소수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여러 차별이 아직도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적극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 조치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역차별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 윤보라, 2015)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나친 여성 위주의 정책으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남성들의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79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같은 문항에 대하여 평균 2.87점을 나타내어 우리나라 남녀 간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설득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내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과 실패,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와 논문(김미경, 1998; 문미경 등, 2013; 금재호, 2012; 이승협, 2016)들에 비해,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의 리더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적극적 조치의 정책을 실행하고 적극적 조치의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인 연구가 있다(Jones, 1991; Engerman, 1992에서 재인용). 또한 전문가의 지지 또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Jones, 1991; Crosby, Iyer, & Sincharoen, 2006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적극적 조치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달라질 수 있는데, Elkins, Bozeman, & Phillips(2003)에 따르면 적극적 조치를 할당제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질과 실력에 근거한 정책(즉, 능력 있는 소수 집단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하는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공정하게 지각된다고 한다. 그

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한 예외로 정재욱, 김혜숙(2017)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설득 장면에서 직접적인 설득 보다는 반대 태도의 기저에 있는 가치인 능력주의 가치를 비판하는 간접적인 설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연구이다. 또한 연구2에서 능력주의 가치를 비판하는 글에 대한 내집단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설득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내집단의 평가가 참여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내집단의 규범적 태도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 방안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람들에게 내집단의 규범적 태도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를 갖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에서 더 나아가 내집단 규범을 제공할 때 적극적 조치 대상과 관련된 내집단 규범 정보가 관련되지 않은 내집단 규범보다 더 효과적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적극적 조치에 대한 설득 관련 국내의 연구에서 내집단 규범의 관련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다 세밀한 방안-적극적 조치의 대상 집단(즉, 여성, 하층계층 등)과 관련된 내집단에 대한 규범 정보의 제시가 설득에 보다 효과적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집단의 규범적 태도 제시를 통한 설득 효과는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범주화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 사회 정체성 이론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람들의 자기 개념의 중요한 부분이 소속된 사회적 집단과 범주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Trepte, 2006; Terry 등, 1999). Tajfel과 Turner(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원한다. 이 때 사회정체성이 자기 개념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므로 소속된 집단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비교이다. 비교의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높은 위신을 얻고 다른 집단과의 구별이 될 때,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사회 정체성을 위해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을 지각적으로 더 좋아하려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고자 한다(Terry 등, 1999). 또한 내집단과 유사하고 외집단과는 차별적인 행동, 태도 등을 통하여 획득한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이 속한 중요 집단에 동일시하여 내집단 구성원들의 규범적 태도나 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사회 정체성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더 나은 집단으로 떠나거나 집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Tajfel, & Turner, 1979). 따라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집단을 좋게 보고 그것을 유지하길 원하므로, 내집단의 규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 유지를 위해 내집단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을 활용하여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내집단의 찬성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찬성 태도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자기 범주화 이론

자기 범주화 이론은 사회 정체성 이론과 대부분의 가설과 방법을 공유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강조를 두는 것에 차이가 있다(Hornsey, 2008).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는 소속된 집단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정의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가 속한 사회적 집단은 너무나도 많다.

자기 범주화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매번 자신이 속한 모든 집단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사람에 따라, 또 지각자가 처한 맥락에 따라 판단에 활용되는 집단이 달라진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외집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내집단과의 차이가 적어지는 사회적 범주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각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기 범주화 이론이다(Hornsey, 2008). 예를 들어, 호남 사람들과 영남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이들은 자신을 ‘호남인’ 혹은 ‘영남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주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호남 혹은 영남 사람들이 일본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은 자신을 ‘한국인’으로 규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자기 개념은 맥락 의존적이며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주요 전제이다. 이 관점에서 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맥락은 상호의존적이다(McGarty, Haslam, Hutchinson, & Turner, 1994).

자기 범주화 이론 중의 한 가지 개념은 비 개인화(depersonalization)이다. 어떠한 범주가 두드러져 사회 정체성이 특출해지면 사람들은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들을 개인으로서 덜 보고, 바꿀 수 없는 집단의 원형으로서 더 바라본다. 여기서 원형이 의미하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범주의 특성을 정의하는 주관적인 현실이고(Hornsey, 2008), 내집단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외집단과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믿음, 태도, 행동, 감정의 서술이자 규정이다(Terry 등, 1999).

사회 정체성이 특출할 때에는 사회적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자신을 교체할 수 있다고 보고 내집단 특성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 반대로 개인적 정체성이 특출할 때에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별되는 개인으로 지각하고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Wyer, 2010). 간단히 말해서, 때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을 독특한 개인으로, 혹은 집단의 구성원으로 지각하는데, 두 경우 모두 자기의 타당한 표현이다. 자기 범주화 이

론에서는 집단을 개인의 반대 단어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집단 멤버십을 개인의 심리적 구성요소로 본다(McGarty 등, 1994). 따라서 개인 정체성이 아닌 집단 정체성이 특출해질 때에는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집단에서 수용되는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집단의 규범과 태도 등을 따르게 된다.

Tajfel은 범주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의 처리에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1979, Trepte, 2006에서 재인용). 사람들은 한정된 용량으로 인해 개인이 속해 있는 여러 집단 중 그가 처한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내집단의 정체성을 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범주화 이론을 활용하여 여러 내집단 중 설득 장면에서 특출해지는 내집단의 규범을 통해 설득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집단의 규범 정보를 활용하여 여성이나 저소득층 등 다양한 대상(혹은 주제)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보다 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적극적 조치를 접했을 때 특출해지는 내집단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내집단 설득 효과

사람들은 외집단에서 제공한 정보보다 내집단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설득이 더 잘 된다(Wyer, 2010; Mackie, Worth, & Asuncion, 1990; Mackie, Gastardo-Conaco, & Skelly, 1992; Wilder, 1990). 또한 자신에게 중요한 내집단의 규범에 따라 행동 변화를 보인다(Terry, Hogg, & White, 1999).

위에서 기술했듯, 집단의 정체성은 주어진 맥락에서 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감정과 행동이 적절한지 규정한다(Hornsey, 2008). 하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내집단의 정보와 규범에 의해

설득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맥락에서 특출해지는 집단의 규범에 따르게 된다. 즉, 단순한 내집단이 아니라 맥락에 관련 되어 있어 특출해진 내집단에 의한 설득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Wyer, 2010).

예를 들어, Wyer(2010)의 연구에 따르면, 안락사와 같은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즉 주제와 관련된 내집단에서 제공된 정보라고 하였을 때 외집단(즉, 타 정당)에서 제공한 정보라고 하였을 때보다 내집단의 찬반 태도와 상관없이 내집단 태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주제가 아닌 학위를 위한 학점 요구와 같은 비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내·외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해상 석유 시추라는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내집단 조건으로 소속 정당과 소속 대학, 외집단 조건으로 다른 정당과 다른 대학을 설정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 주제의 외집단에 비해 관련 주제의 내집단의 태도를 더 많이 따랐으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집단과 외집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집단에 의한 설득이 더 잘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동조 압력이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 지지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조를 하고(Abrams, Wetherell, Cochrane, Hogg, & Turner, 1990), 특히 내집단을 떠날 수 없고 남고 싶어 하는 구성원에 대해 상당한 동조 압력이 나타난다(Wilder, 1990). 또한 사람들은 주제에 대해 관여도가 높고 인지적 용량이 많을 때엔 전달하는 메시지의 질과 타당성을 평가하며 정보를 처리하는데(Chaiken, 1980),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집단이 외집단에 비해 더 믿을만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에(Ratner, Dotsch, Wigboldus, van Knippenberg, & Amodio, 2014) 정보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여 내집단에 의한 설득이 더 잘 이루어진다. 반면, 주제에 대해 깊게 관여하지 않을 때는 휴리스틱적 단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득하려는 사람의 호감 수준에 영향

을 받는다(Chaiken, 1980; Mackie 등, 1990).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비슷한 타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속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을 좋아하며 내집단 구성원들과 가장 많이 상호작용한다(Wilder, 1990). 따라서 내집단이 외집단에 비하여 호감도가 높고, 이는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효과적인 설득 효과를 보이도록 한다.

또 다른 이유는 내집단 편애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을 원하는데, 이 목표는 외집단과의 비교에서 내집단을 편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Mullen., Brown, & Smith, 1992). 따라서 긍정적 사회 정체성 획득을 위한 편애로 인해 내집단의 규범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내집단에서 제공한 정보와 내집단의 규범에 의해 설득이 잘 이루어지고 그에 맞게 태도를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긍정적 내집단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는데, 단순한 내집단 규범을 제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설득 맥락에 따라 관련된 내집단에 대한 정보가 관련성이 낮은 내집단 정보보다 더 효과작인 지를 검토하였다. 즉,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라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내집단이 특출해져 사람들은 여러 내집단 중 특출해진 내집단(혹은 맥락에 의해 점화된)의 정체성을 취할 것이고, 그 결과로 관련 내집단의 규범 제시가 관련 없는 내집단의 규범 제시보다 더 설득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내집단 규범 정보의 제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범주화 이론의 제안대로, 단순한 내집단 정보가 아니라 설득

주제와 관련된 대상 범주(성별 혹은 대학생)의 내집단 정보가 설득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에 관한 설득 지문을 읽을 때에는 관련 범주인 성별 범주가 접화됨으로써 참여자의 대학생 내집단 규범보다 성별 내집단 규범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알아보았다(연구1). 또한 주제와의 관련성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집단이 달라지는지를 반복·확인하기 위하여 연구2에서는 대학생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하여 대학생 내집단 규범 정보가 성별 내집단 규범 정보보다 기존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연구2).

이러한 연구는 자기범주화 이론이 적극적 조치나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이론의 활용을 확장하도록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을 위해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설득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중요한 실질적 의미가 있다.

## 연구 1

연구1에서는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 관련 내집단의 설득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를 주장하는 설득 메시지를 접하면 주제와 관련된 성별 범주가 접화되기 때문에 대학생 내집단에 비해 성별 내집단이 태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참여자간 2원 설계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 혹은 중립 태도를 보이는 내집단 규범을 본 후 사후 태도를 측정하여 종속 변인으로 사용하였

다. 내집단 규범이 반대 태도를 나타내는 조건은 참여자의 반대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아 내집단 규범을 찬성 조건과 반대 조건이 아닌 찬성 조건과 중립 조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연구1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변화 시도의 경우에는 대학생 범주보다 성별 범주가 더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대학생 내집단의 규범보다 참여자의 성별 내집단의 규범이 태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별 내집단 조건에서는 내집단 규범이 찬성일 경우 중립일 경우보다 더 큰 우호적 태도변화가 나타날 것이지만, 이에 비해 대학생 내집단 조건에서는 내집단 규범 정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방 법

### 실험 참여자

심리학 교양 수업 혹은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00대학교 구글 실험 참여 모집 시스템을 통해 대학생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22.34세였으며, 실험 참여 보상으로 수업 실험 참여 점수를 받았다. 총 167명이 참가하였으나, 조작 점검 문항 탈락 33명을 제외한 최종 134명(남성 46명, 여성 8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1 결과를 분석하였다.

###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 지문

모든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관한 지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이루고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계속 되고 있다. 그 중 조직 내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 중 하나가 ‘유리천장’이다. 이는 조직 내에서의 여성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천장을 뜻한다. 실제로 2017년 10월 발표된 OECD의 성 평등 추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리직 이상에서의 성 격차는 79%포인트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37.7%포인트와 상당히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같은 조직 내에서도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나누는 성별 분업이다. 여성은 대체로 승진에 유리한 핵심적인 업무에서 배제되어 승진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즉, 승진에 필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는 남성에게 할당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성에게 불리한 조직 내 사회적 관계이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전문적인 능력과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평판이 승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진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 네트워크(관계망)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기회나 평판을 좋게 쌓을 기회가 없다. 그로 인해 상사로부터 인정받아 승진을 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 이처럼 여성을 배제하는 구조와 통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통해 조직 내 공정한 승진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 승진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적극적 조치: 과거부터 누적된 차별 해소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차별 제거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수(약자)집단을 위한 할당제를 실시하는 정책과 행위

위 지문은 원미혜(2007)와 이주희, 한영희, 성현정, & 인정(2007)의 논문의 내용을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 측정 도구

#### 조작점검

참여자들은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글을 읽은 후 성별 범주가 알맞게 점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작 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위의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관한 지문을 읽고 떠오른 집단은 무엇입니까? 보기의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사지선다로 응답을 하였다. 보기는 ‘인종 집단’, ‘남녀 성별 집단’, ‘대학생 집단’, ‘노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남녀 성별 집단’을 선택하지 않은 참여자는 조작 점검 탈락으로 제외되었다. 다음으로 할당된 내집단 유형 조건의 태도를 나타낸 도표를 본 후에 두 조작 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도표에 제시된 태도를 나타낸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앞장을 넘겨보지 마시고, 보기의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네 개의 보기로 제시된 ‘20세 이상 성인 남성 집단’, ‘20세 이상 성인 여성 집단’, ‘대학생 집단’, ‘노인 집단’에 사지선다로 응답을 하였는데, 제시된 도표의 내집단과 다른 집단을 고른 참여자들은 조작 점검 탈락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도표에 제시된 지문을 읽은 후에 제시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앞장을 넘겨보지 마시고, 보기의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을 했다. 참여자들은 9점 척도 문항(1=매우 반대한다, 9=매우 찬성한다)에 응답을 하였다. 제시된 내집단의 태도에서 위아래로 1점 이상 차이가 나게 고른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종속 측정

#### 사전 태도

참여자들은 처음 8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각각 찬반 태도와 필요성 인식을 묻는 문항을 작성하였는데, 이 중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두 응답만을 사전 태도로 사용하였다. 찬반 태도를 묻는 문항은 9점 척도(1=매우 반대한다, 9=매우 찬성한다)로 측정하였고 필요

성 인식 문항 또한 9점 척도(1=전혀 필요하지 않다, 9=반드시 필요하다)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에 대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r=.891, p<.001$ ), 두 문항을 평균 내어 사전 태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 사후 태도

사후 태도는 지문과 내집단 도표를 본 후에 응답한, 사전 태도 문항과 같은 찬반 태도와 필요성 인식을 묻는 두 문항을 평균 낸 것으로 사용하였다.

### 정체성 점수

자기 범주화 이론에서는 내집단과의 동일시가 그 내집단을 자기 개념의 중심적 부분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내집단 중심성은 개인의 주관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특출함으로 인해 나타난다. 중심성은 내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특출함과 중요성을 의미하고, 내집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Oakes, Haslam, & Turner, 1994; Leach, Van Zomeren, Zebel, Vliek, Pennekamp, Doosje, & Spears, 2008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이유로 참여자의 성별 정체성과 대학생 정체성 중 더 특출한 것이 있다면 상황과는 상관없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어 정체성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측정하였다. 두 정체성 측정을 위해 Leach 등(2008)의 정체성 척도 중 중심성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종종 내가 [내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내가 [내집단]이라는 사실은 나의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다.”, “내가 [내집단]인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중요한 부분이다.”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내집단]에 성별과 대학생을 각각 넣어 총 6문항을 완성하였다. 분석에는 세 문항씩 평균을 내어 성별 정체성 점수와 대학생 정체성 점수로 사용하였다.

### 절차

참여자들은 칸이 나누어져 있는 실험실에서 1~6명 단위로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이 나누어진 칸에 모두 앉고 난 후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조사 및 토론대회 지문 개발’이라는 명목상 목적과 절차 및 지시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8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항을 완성하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응답했던 8개의 사회적 이슈 중 한 주제를 뽑아 그 주제의 지문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8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각각 찬반 태도를 묻는 9점 척도 문항(1=매우 반대한다, 9=매우 찬성한다)과 필요성 인식을 묻는 9점 척도 문항(1=전혀 필요하지 않다, 9=반드시 필요하다)을 완성하였다. 8가지 사회적 이슈에는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 몰래카메라 관련 법,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이 있었다. 이 중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반 태도 문항과 필요성 인식 문항, 총 2 문항의 평균을 사전 태도로 사용하였다.

태도 응답을 마친 참여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각각 다른 알파벳이 적힌 쪽지를 뽑았지만, 모두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를 주장하는 지문을 제공 받았다. 주어진 지문을 읽은 후, 조작 점검을 위해 참여자들은 지문을 읽고 떠오른 집단이 무엇인지 묻는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그 후 할당된 조건에 따라 참여자 성별 내집단의 규범 혹은 대학생 내집단의 규범을 찬성 혹은 중립으로 나타낸 도표를 보았다. 이 도표는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찬성 태도는 6.68점으로, 중립 태도는 4.68점으로 제시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사전에 진행된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내집단이 주어진 지문을 읽은 후에 응답한 태도의 평균이라는 지시문을 읽었다. 부록1에 참여자들에게 제시한 규범 정보 도표가 나타나 있다. 이 때 성별 내집단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가 남성일 경우 남성들의 찬성 태



도 혹은 중립 태도 도표를, 여성일 경우 여성들의 찬성 태도 혹은 중립 태도 도표를 보았다. 도표를 본 후에 앞서 8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모두 응답했던 것과 달리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만 찬반 태도 문항과 필요성 인식 문항을 작성하였고, 이를 평균 내어 주요 종속 측정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도표를 제대로 인식하였는지 확인하는 조작 점검 문항을 작성하였는데 도표에서 나타난 태도는 어떤 집단의 태도였는지,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그 집단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두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상황에서 특정 내집단이 특출해지더라도 참여자 개인의 집단 동일시 수준에 따라 각 내집단의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Wyer(2010)의 선행 연구에 따라 집단 정체성의 요소들 중 중심성을 측정하는 척도(Leach 등, 2008)를 사용하여 성별 내집단 정체성과 대학생 내집단 정체성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초반에 정체성 척도에 응답하지 않게 한 이유는 두 정체성에 대한 설문을 한 뒤 지문을 읽는 경우 실험 목적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의견을 적은 뒤, 사후 설명을 듣고 실험을 마쳤다.

## 결 과

### 조작 점검

각 조건 간 조작 점검 탈락자 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첫 번째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하여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 중립 조건에서 2명, 여성 찬성 조건에서 1명, 여성 중립 조건에서 1명, 대학생 중립 조건에서 3명이 각각 탈락했고, 여섯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chi^2=2.92, p=.233$ ). 두 번째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하여 같은 설계로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남성 찬성 조건에서 1명, 남성 중립 조건에서 4명, 여성 중립 조건에서 2명, 대학생 찬성 조건에서 5명, 대학생 중립 조건에서 6명이 각각 탈락했다. 여섯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2.13, p=.345$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찬성 조건에서 2명, 여성 중립 조건에서 3명, 대학생 찬성 조건에서 1명, 대학생 중립 조건에서 2명이 각각 탈락했다. 마찬가지로 여섯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0.36, p=.714$ ).

### 상관 분석

주요 변인 간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먼저, 사전 태도와 사후 태도 간의 정적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r=.847, p<.001$ ). 다음으로 성별(남성=1, 여성=2)과 사전 태도( $r=.493, p<.001$ ), 그리고 사후 태도( $r=.391, p<.001$ ) 각각의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여성 적극적 조치에 대해 더 높은 사전 태도 점수와 사후 태도 점수를 보인 것을 나타내며, 더 강한 찬성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성별(남성=1, 여성=2)과 사후-사전 태도 차이 점수의 부적 관계 또한 유의미하였는데( $r=-.260, p=.002$ ), 남성들이 찬성 쪽으로 태도 변화를 더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정체성과 성별( $r=.317, p<.001$ ), 사전 태도( $r=.355, p<.001$ ), 사후 태도( $r=.417, p<.001$ ) 각각의 정적 관계가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더 높은 성별 정체성 점수를 보였다는 것과 더 높은 성별 정체성 점수를 보인 참여자들이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 더 강한 찬성 태도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표 1. 연구1 주요변인의 상관표

	성별	사전 태도	사후 태도	사후-사전 태도 차이	성별 정체성
성별	1				
사전 태도	.493***	1			
사후 태도	.391***	.847***	1		
사후-사전 태도 차이	-.260**	-.436***	.109	1	
성별 정체성	.317***	.355***	.417***	.043	1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사전 태도

집단 간 사전 태도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참여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유형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2, 126) = 5.06, p < .01$ , 남성 조건( $M = 4.69, SD = 2.00$ )에서 여성 조건( $M = 6.01, SD = 1.46$ )에서보다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 더 낮은 사전 태도 점수를 보였다. 다른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

사후 태도

사전 태도에서 내집단 유형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전 태도를 공변인으로 넣은 뒤 사후 태도에 대하여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찬성 태도 조건( $M = 6.25, SD = 1.49$ )이 중립 태도 조건( $M = 5.73, SD = 1.70$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찬성 태도 점수를 보였다,  $F(1, 127) = 10.92, p = .001$ . 또한 내집단 유형과 내집단 규범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2, 127) = 3.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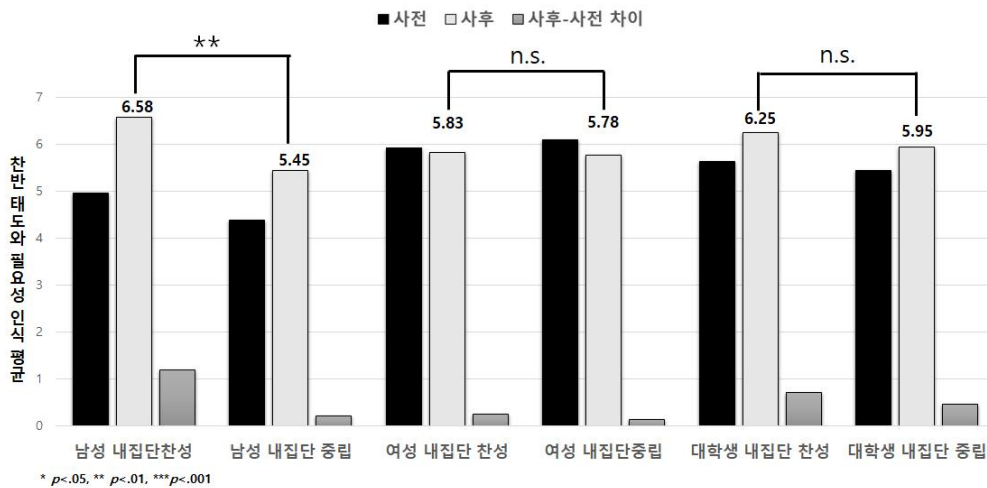


그림 1.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조정된 사후 태도 평균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표 2. 연구1 주요 종속 변인의 평균(표준편차)

	조건					
	남성		여성		대학생	
	찬성	중립	찬성	중립	찬성	중립
사전 태도	4.97(1.77)	4.39(2.25)	5.93(1.62)	6.10(1.32)	5.63(1.68)	5.44(1.84)
사후 태도	6.17(1.79)	4.61(2.14)	6.17(1.30)	6.24(1.16)	6.34(1.49)	5.90(1.60)
사후-사전 태도	1.20(0.94)	0.21(0.75)	0.24(0.78)	0.14(0.74)	0.72(0.73)	0.47(1.24)
조정된 사후 태도 <sup>1</sup>	6.58(0.21)	5.45(0.22)	5.83(0.18)	5.78(0.18)	6.25(0.14)	5.95(0.15)

주 <sup>1</sup> 조정된 사후 태도는 사후 태도 점수에서 공변인의 영향을 통제해 낸 점수

$p < .05$ . 남성 조건에서 내집단 규범에 대한 비교 검증 결과, 남성 찬성 조건( $M=6.17, SD=1.79$ )이 남성 중립 조건( $M=4.61, SD=2.14$ )에 비하여 높은 사후 태도 평균 점수를 보였다( $F(1,128)=7.25, p < .01$ ). 반면, 여성 조건( $F(1,128)=.02, p=.882$ )과 대학생 조건( $F(1,128)=3.06, p=.264$ )에서는 이와 같은 내집단 규범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에 각 조건에서의 사전, 사후 및 조정된 사후 태도 점수와 표준 편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림 1에 각 조건에서의 사전태도, 사후태도 및 사후-사전 태도 차이 점수의 평균 점수가 나타나 있다.

또한 사후-사전 태도 차이 점수에 대해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참여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분포로니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 조건( $M=0.70, SD=0.17$ )이 여성 조건( $M=0.19, SD=.14$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태도 차이 점수를 보였고( $p < .05$ ), 대학생 조건( $M=0.59, SD=0.12$ )이 여성 조건( $M=0.19, SD=.14$ )에 비해 유의미성에 근접하게 높은 태도 차이 점수를 보였다( $p=.08$ ). 남성 조건과 대학생 조건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10$ ). 뿐만 아니라 찬성 태도 조건( $M=0.68, SD=0.86$ )이 중립 태도 조건( $M=0.31, SD=1.01$ )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사후-사전 태도 차이 점수를 보였다,  $F(1, 128)=7.21, p=.008$ . 그러나 예측했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28)=2.27, p=.108$ ).

#### 정체성 점수

성별 정체성 3문항의 평균과 대학생 정체성 3문항 평균에 대하여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참여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정체성과 대학생 정체성 점수에 대한 내집단 유형, 내집단 규범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응 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학생 정체성( $M=5.04, SD=1.21$ )이 성별 정체성( $M=4.83, SD=1.19$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t(134)=2.06, p < .05$ .

## 논 의

연구1에서는 주제와 관련 없는 내집단의 규범에 비해 주제와 관련 있는 내집단의 규범이 내집단 설득 효과를 더 많이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 지문을 읽은 후, 조건에 따라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참여자의 성별 내집단이나 대학생 내집단의 찬성 혹은 중립 태도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았다.

연구 결과,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성별 조건에서 대학생 조건에 비해 더 많은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이는 남성 조건에 한하여 나타났다. 여성과 대학생 조건은 약간의 태도 변화는 나타났으나 찬성 태도와 중립 태도 조건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남성 조건의 참여자들은 남성들의 찬성 규범을 본 조건에서 중립 규범을 본 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사후 태도 점수를 보였다. 또한 성별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대안적 설명은 정체성 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오히려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유의미한 내집단 규범 정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이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이미 높은 찬성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변화할 수 있는 태도 폭이 좁아 유의미한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예측대로 남성 내집단을 활용한 설득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제 관련 내집단 규범 정보가 실제로 여성 적극적 조치에 대해 여성에 비해 보다 더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 남성들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어 실용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본 연구1에서 나타난 설득 효과는 적극적 조치 설득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집단과 내집단의 일치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는 부족하다. 즉, 남성 내집단 조건에서만 유의미한 설득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이 결과는 주제의 일치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예컨대, 남성 집단의 규범 정보가 다른 규범 정보보다 더 설득력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연구2에서는 여성 관련 적극적 조치가 아닌 다른 주제인 대학 관련 적극적 조치를 사용하여 주제에 따라 다른 내집단을 활용하여 설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재확인하

고자 하였다.

## 연구 2

연구2에서는 연구1과는 다른 주제인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였다. 대학과 관련된 주제로, 지문을 읽으면서 대학생 범주가 점화되기 때문에 대학생 내집단의 규범이 성별 내집단 규범에 비해 태도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예측한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제에 따라 다른 내집단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1의 결과를 반복하여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 1의 결과에 대한 대안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연구2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변화 시도의 경우에는 성별 범주보다 대학생 범주가 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참여자의 성별 내집단의 규범보다 대학생 내집단의 규범이 태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내집단 조건에서는 내집단 규범이 찬성일 경우 중립일 경우보다 더 큰 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지만 성별 내집단 조건에서는 내집단 규범 정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방 법

### 실험 참여자

연구1과 마찬가지로 00대학교 구글 실험 참여 모집 시스템을 통해 심리학 교양 수업 혹은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134명의 참여자 중 14명의 조작 점검 문항 탈락으

로 인해, 최종 120명(남성 48명, 여성 72명)을 대상으로 연구2 결과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22.89세였으며 연구1과 마찬가지로 실험 참여 보상으로 수업 실험 참여 점수를 받았다.

####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 지문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애초에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여 대학생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2016년 한국인구학회의 통계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에 따라 자녀의 학습 시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은 명문대들이 도입한 수시 전형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소위 ‘있는 집 자녀’들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대학 입학에서 신입생 선발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 균형 선발, 저소득 계층 특별 전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발 방식은 일종의 할당제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의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계층의 학생들을 배려하여 그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이 되기 위한 출발선을 모두에게 같게 만들어 주는 것은 공정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입학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적극적 조치: 과거부터 누적된 차별 해소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차별 제거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수(약자)집단을 위한 할당제를 실시하는 정책과 행위(손철성, 2015; 기획취재팀, 2017)

위 지문은 손철성(2015)의 논문과 매일 경제 기획취재팀의 ‘한국사회 불평등, 가장 심각한 이슈는 ‘교육격차’였다’(2017)에서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 측정 도구

##### 조작 점검

참여자들은 연구1과 같은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 지문을 읽고 대학생 범주가 점화 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위의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관한 지문을 읽고 떠오른 집단은 무엇입니까? 보기의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사지선다로 응답을 하였다. 보기는 ‘인종 집단’, ‘남녀 성별 집단’, ‘대학생 집단’, ‘노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 집단’을 고르지 않은 참여자는 조작 점검 문항 탈락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제시된 도표의 내집단과 내집단 태도를 알맞게 인식했는지 확인하였다. “도표에 제시된 태도를 나타낸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앞장을 넘겨보지 마시고, 보기의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사지선다로 응답을 하였는데, 앞 장에서 제시된 도표의 내집단과 다른 집단을 고른 참여자들은 조작 점검 탈락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보기는 ‘20세 이상 성인 남성 집단’, ‘20세 이상 성인 여성 집단’, ‘대학생 집단’, ‘노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도표에 제시된 지문을 읽은 후에 제시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앞장을 넘겨보지 마시고, 보기의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항에 대해 9점 척도(1=매우 반대한다, 9=매우 찬성한다)로 응답하였다. 역시 앞장에서 제시된 내집단 태도에서 위아래로 1점 이상 벗어난 태도를 고른 참여자들은 조작 점검 문항에서 탈락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종속 측정

##### 사전 태도

사전 태도는 절차상 맨 처음의 8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응답 중에서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반 태도 문항과 필요성 인식

의 두 문항을 평균 낸 것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2와 마찬가지로 두 문항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 $r=.767, p<.001$ ), 두 문항을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찬반 태도 문항은 9점 척도(1=매우 반대한다, 9=매우 찬성한다)로 이루어졌고, 필요성 인식 문항 또한 9점 척도(1=전혀 필요하지 않다, 9=반드시 필요하다)로 이루어졌다.

### 사후 태도

사후 태도는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지문을 읽고 할당된 조건에 따라 내집단의 도표를 본 후에 응답한 찬반 태도 문항과 필요성 인식 문항의 두 문항을 평균 낸 것으로 사용하였다. 두 문항은 사전 태도의 문항과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 정체성 점수

연구1과 마찬가지로 Leach 등(2008)의 정체성 척도 중 중심성 문항을 사용하여 성별 정체성에 대해 묻는 세 문항과 대학생 정체성에 대해 묻는 세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고, 각 3문항씩 평균 내어 성별 정체성 점수와 대학생 정체성 점수로 사용하였다.

### 절차

연구2의 실험 절차는 연구1과 같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연구2는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으므로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 지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칸이 나누어진 실험실에 1~6명 단위로 실험에 참여하였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조사 및 토론대회 지문 개발'이라는 명목상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참여자들은 연구1과 같은 설문지로 8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각각 찬반 태도와 필요성 인식 문항에 응답하였는데, 이 중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두 문항을 평균 내어 사전 태도 점수로 사용하였

다. 참여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각각 다른 알파벳을 뽑았지만 모두 같은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 지문을 읽었다. 주어진 지문을 읽은 후, 조작 점검을 위해 참여자들은 지문을 읽고 떠오른 집단이 무엇인지 묻는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할당된 조건에 따라 참여자의 성별 내집단 혹은 대학생 내집단이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 찬성 혹은 중립 태도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았다. 연구1과 마찬가지로 이 도표는 내집단 구성원들이 주어진 지문을 읽은 후에,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내집단의 태도 평균을 나타낸 도표라고 설명하였다. 이 도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찬성 조건은 9점 척도 중 7.91점으로, 중립 조건은 9점 척도 중 4.91점으로 제시하였다. 성별 조건에 할당된 남성은 남성들의 찬성 혹은 중립 규범 도표를 보았고, 여성은 여성들의 찬성 혹은 중립 규범 도표를 보았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지문과 내집단 도표를 본 후 사전 태도 측정 문항과 같은 두 문항에 대해 사후 태도를 응답을 하였고, 도표를 제대로 인식하였는지 확인하는 조작 점검 문항을 작성하였다. 도표에서 나타난 태도는 어떤 집단의 태도였는지,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그 집단의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두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성별 정체성과 대학생 정체성 문항을 완성한 뒤 실험 목적이 무엇일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의견을 적었다. 그 후 사후 설명을 듣고 실험실에서 나왔다.

## 결 과

### 조작 점검

각 조건 간 조작 점검 탈락 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조작 점검 문

항에서 탈락한 참여자는 여성 중립 조건의 1명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작 점검 문항에서 남성 찬성 조건에서 3명, 남성 중립 조건에서 1명, 여성 중립 조건에서 1명, 대학생 찬성 조건에서 4명, 대학생 찬성 조건에서 4명, 대학생 중립 조건에서 1명의 탈락이 있었지만, 이 여섯 조건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chi^2=2.62, p=.270$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작 점검 문항에서의 탈락 역시 남성 찬성 조건에서 1명, 대학생 찬성 조건에서 2명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750, p=.386$ ).

#### 상관 분석

주요 변인 간 상관 분석을 한 결과, 사전 태도와 사후 태도의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r=.577, p<.001$ ). 상관 분석 결과는 표 3에 나타났다. 또한 사전 태도와 대학생 정체성과의 상관이 유의미하였고( $r=.188, p=.040$ ), 사후 태도와 대학생 정체성과의 상관 또한 유의미하였다( $r=.194, p=.034$ ). 이는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높은 찬성 태도 점수와 높은 대학생 정체성 점수 간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전 태도와 사후-사전 태도 차이 간의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r=-.508, p<.001$ ), 사전 태도가 낮을수록 찬성 쪽으로 태도를 많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 사전 태도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 집단 간 사전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참여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 찬성 조건( $M=6.58, SD=0.86$ ), 남성 중립 조건( $M=6.21, SD=1.05$ ), 여성 찬성 조건( $M=6.46, SD=1.33$ ), 여성 중립 조건( $M=5.83, SD=1.43$ ), 대학생 찬성 조건( $M=6.50, SD=1.32$ ), 대학생 중립 조건( $M=6.90, SD=1.23$ ) 간의 그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

#### 사후 태도

사전 태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사후 태도에 대한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의 참여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찬성 태도 조건( $M=6.98, SD=1.11$ )이 중립 태도 조건( $M=6.28, SD=1.20$ )에 비하여 높은 사후 태도 점수를 나타냈다,  $F(1, 114)=10.40, p=.002$ . 하지만 내집단 유형의 주효과나 예측했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구1과 같이 사후-사전 태도 차이 점수에 대한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

표 3. 연구2 주요변인의 상관표

	성별	사전 태도	사후 태도	사후-사전 태도 차이	대학생 정체성
성별	1				
사전 태도	.038	1			
사후 태도	.151	.577***	1		
사후-사전 태도 차이	.117	-.508***	.410***	1	
대학생 정체성	.067	.188*	.194*	-.006	1

†  $p<.10$ , \*  $p<.05$ , \*\*  $p<.01$ , \*\*\*  $p<.001$

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참여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114)=3.30, p<.05$ . 본페로니 검정을 통한 사후 검증 결과, 여성 조건의 참여자들( $M=0.52, SD=0.16$ )이 대학생 조건( $M=-0.05, SD=0.16$ )에 비해 찬성 방향으로 태도를 더 많이 변화했다( $p<.05$ ). 남성 조건의 참여자들( $M=0.14, SD=0.21$ )과 여성 조건의 참여자들( $M=0.52, SD=0.16$ )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p=.41$ ), 남성 조건의 참여자들( $M=0.14, SD=0.21$ )과 대학생 조건( $M=-0.05, SD=0.16$ )의 참여자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p=.10$ ). 또한 내집단 규범 간의 차이도 유의미했다,  $F(1, 114)=7.69, p<.01$ . 즉, 참여자들은 찬성 조건( $M=0.42, SD=0.14$ )에서 중

립 조건( $M=-0.04, SD=0.15$ )에 비해 더 많이 찬성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했다. 마지막으로 예측했던 상호작용은 유의미성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F(2, 114)=2.85, p=.062$ . 대학생 조건에서 내집단 규범에 대한 비교 검증 결과, 대학생 찬성 조건( $M=0.50, SD=0.22$ )이 대학생 중립 조건( $M=-0.60, SD=0.22$ )에 비해 더 찬성하는 쪽으로의 태도 변화를 보였다( $F(1, 114)=12.39, p=.001$ ). 대응 표본 t검증 결과, 대학생 찬성 조건은 사전 태도에 비하여 사후 태도가 더 높은 찬성 태도 점수를 보였다( $t(21)=2.44, p<.05$ ), 대학생 중립 조건은 사전 태도에 비하여 사후 태도가 더 낮은 찬성 태도 점수를 보였다( $t(24)=-3.23, p<.01$ ). 남성( $F(1, 114)=.42, p=.52$ )이나 여성 조건( $F(1, 114)=.07, p=.80$ )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표 4. 연구2 주요 종속 변인의 평균(표준편차)

	조건					
	남성		여성		대학생	
	찬성	중립	찬성	중립	찬성	중립
사전 태도	6.58(0.86)	6.21(1.05)	6.46(1.33)	5.83(1.42)	6.50(1.32)	6.90(1.23)
사후 태도	6.85(1.30)	6.21(0.97)	7.02(1.15)	6.30(1.12)	7.00(0.99)	6.29(1.20)
사후-사전 태도	0.27(1.39)	0.00(0.88)	0.56(0.85)	0.48(1.45)	0.50(0.99)	-0.60(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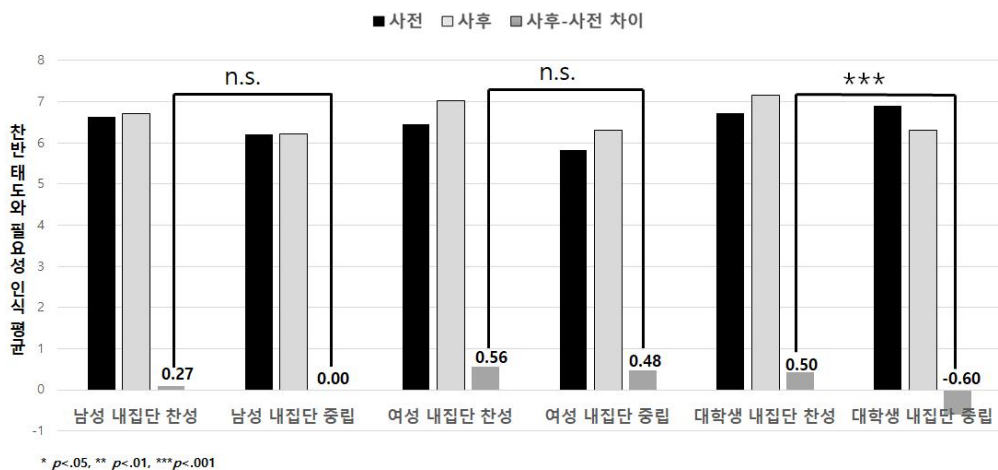


그림 2.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후-사전 태도 차이 점수의 분산분석 분석 결과



않았다. 각 조건의 사전 태도, 사후 태도, 사후-사전 태도 차이 점수의 평균이 표 4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 정체성 점수

대학생 조건의 참여자들이 남성 조건과 여성 조건 참여자들에 비해 대학생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기 위하여 성별 정체성과 대학생 정체성에 대해 3(내집단 유형: 남성 vs. 여성 vs. 대학생) x 2(내집단 규범: 찬성 vs. 중립) 참여자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참여자들의 정체성 점수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 정체성 점수( $M=5.36, SD=0.97$ )가 성별 정체성 점수( $M=5.18, SD=1.08$ )에 비하여 유의미성에 근접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t(119)=1.93, p=.056$ .

### 논 의

연구2에서는 연구1과는 다른 주제인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 대해 내집단 설득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았다. 연구1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글을 읽은 후 할당된 조건에 따라 성별 내집단 혹은 대학생 내집단의 찬성 혹은 중립 태도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았다.

연구 결과,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성별 내집단 조건인 남성 조건이나 여성 조건에서는 내집단 규범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대학생 조건의 참여자들은 대학생의 태도 규범이 찬성인 경우에는 더욱 찬성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고, 중립 태도 규범인 경우에는 태도가 중립 쪽으로 바뀌었다. 이는 연구1에서 남성 조건의 참여자들이 내집단 규범 정보에 의한 설득이 잘 이루어

어진 것이 남성 집단의 규범 정보가 다른 규범 정보에 비해 더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대안적 설명을 배제할 수 있는 결과이다. 연구2를 통해 대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대학생 내집단 규범 정보의 영향이 태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설득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집단과 내집단의 일치성 때문에 설득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1의 결과를 재확인 및 강화하였다.

### 전반적 논의

연구1과 연구2를 통하여 주제에 관련된 내집단의 규범을 활용하여 설득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내집단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것보다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어, 본 연구의 가설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1에서는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설득 장면에서 대학생 내집단에 비하여 성별(즉, 남성) 내집단이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구2에서는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한 설득 장면에서 성별 내집단에 비하여 대학생 내집단이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기 범주화 이론의 내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인이 속한 여러 내집단 중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집단이 점화되어 그 내집단의 정체성이 특출해지기 때문에 관련 내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연구1에서는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 지문을 읽은 후에 남성 조건의 참여자들은 성별 범주가 점화됨으로써 남성이라는 정체성이 특출해졌기 때문에 남성들의 규범 제시에 더 큰 영향을 받아 태도를 변화하였다. 남성 찬성 조건의 참여자들은 태도를 찬성 쪽으로 바꾼 반면, 남성 중립 조건의 참여자들은 찬성 쪽으로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주제와 관련

없는 내집단인 대학생 조건의 참여자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조건의 참여자들은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원래 여성 승진 관련 적극적 조치에 대해 찬성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았고, 그로 인해 남성 조건 참여자들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호의적인 내집단 규범에 의해서 남성 참여자들에 있어서만 설득 효과가 나타난 것은, 통상적으로 한국 남학생들이 이 이슈에 관해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용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구2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연구1과는 다른 주제인 대학 입학 관련 적극적 조치 지문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관련 내집단인 대학생 범주를 점화시키기 때문에, 대학생 조건의 참여자들이 남성 조건 혹은 여성 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 내집단 규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태도를 바꾸었다. 대학생 집단이 찬성 규범을 나타내는 도표를 본 참여자들은 찬성 쪽으로 태도를 변화하였고, 대학생 집단의 중립 규범 도표를 본 참여자들은 중립 쪽으로 태도를 변화하였다. 이는 남성 혹은 여성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내집단의 영향이 더 크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실험을 통해 개인이 속한 여러 내집단 중 상황에 따라 특출해지는 정체성을 취한다는 자기 범주화 이론의 제안과 내집단 설득 효과를 확인하는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자기범주화 이론이 제안하는 대로 내집단 규범 정보에 의한 설득 효과는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져서, 주제 관련 내집단 범주가 관련 없는 내집단 범주보다 더 특출해지고 그에 따라 전자의 내집단 정체성이 더욱 특출해져서 그 내집단의 규범 정보가 태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범주화 이론의 제안과 선행 연구 결과들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설득 상

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로, 자기범주화 이론 활용의 확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 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수집단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적극적 조치에 대한 보다 세밀한 설득 방법을 찾아냈다는 실용적 함의도 가지고 있다. 즉,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다소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집단 규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적극적 조치 대상 집단과 관련된 내집단의 호의적 규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안해 준다. 예를 들어, 지방 출신 대학생들을 기업에서 일정 비율을 채용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 정책에 사람들이 보다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범주를 활용하여 지역 내집단의 호의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관련 없는 내집단 규범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1과 연구2의 결과가 비 일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즉, 연구1에서는 공변량 분석에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반면, 연구2에서는 사후-사전 태도 차이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의 상호작용만 유의미성에 근접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조건만 포함하고 외집단 조건과의 비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외집단 조건을 추가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주제와 관련된 내집단이기 때문에 규범 정보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단순히 주제와의 관련성으로 점화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 있는 외집단 조건을 추가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문을 읽은 뒤 떠오르는 집단을 고르도록 한 조작 점검 문항은 실험 절차의 중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험 참여자들로 하여금 실험 내용을 짐작하도록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요구특성의 편파가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요구 특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 간

접적인 방법으로 내집단 접화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조작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집단범주(여성, 남성 혹은 대학생 등)들에 대한 역할 의식적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등으로 범주의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 태도 측정과 사후 태도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큰 시간차를 두고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관해 실험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일반인에게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안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들의 대학생 정체성이 특출해진 상태로 실험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더 다양한 내집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호 (201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노동리뷰*, 49-65.
- 기획취재팀 (2017. 2.). 한국사회 불평등, 가장 심각한 이슈는 '교육격차'였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4433>
- 김미경 (1998). 공적부문에서의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과 방향-여성고용할당제를 중심으로. *가정문화연구*, 12(단일호).
- 동그라미재단 (2015. 9.). 기획균등지수연구.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3호.
- 문미경, 김복태, 정수연, & 류도암 (2013).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행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2013 연구보고서 22.
-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 윤보라 (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2015 연구보고서 30.
- 손철성 (2015). 적극적 우대 조치의 정당화 논변에 대한 고찰-대학 입학 할당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36, 197-212.
- 원미혜 (2007). 십대/여성 정책의 도전과 과제-적극적 조치, 실질적 평등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4, 111-145.
- 이승협 (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여성연구*, 7-43.
- 이주희, 한영희, 성현정, & 인정 (2007). 공직의 유리천장. *한국여성학*, 23(3), 79-115.
- 장지연 (2006).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한국여성학*, 22(2), 167-208.
- 정재욱, & 김혜숙 (2017). 가치 및 원칙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03-224.
- 최종권, & 김민욱 (2017. 9.). “여자는 출산·휴직 하니 채용 말라” 가스안전공사, 접수조작 7명 탈락.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978783>
- Abrams, D., Wetherell, M., Cochrane, S., Hogg, M. A., & Turner, J. C. (1990). Knowing what to think by knowing who you are: Self categorization and the nature of norm formation, conformity and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2), 97-119.
- Chaiken, S.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752.
- Crosby, F. J., Iyer, A., & Sincharoen, S. (2006). Understanding affirmative action. *Annu. Rev. Psychol.*, 57, 585-611.
- Elkins, T. J., Bozeman, D. P., & Phillips, J. S. (2003). Promotion decisions in an affirmative action environment: Can social accounts change

- fairness percep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6), 1111-1139.
- Engerman, S. L. (1992). Review.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1(4) (Autumn, 1992), pp. 737-742.
- Hornsey, M. J. (2008). Social identity theory and self categorization theory: A historical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204-222.
- Leach, C. W., Van Zomeren, M., Zebel, S., Vliek, M. L., Pennekamp, S. F., Doosje, B., & Spears, R. (2008). Group-level self-definition and self-investment: a hierarchical (multicomponent) model of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144.
- Mackie, D. M., Gastardo-Conaco, M. C., & Skelly, J. J. (1992). Knowledge of the advocated position and the processing of in-group and out-group persuasive messa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2), 145-151.
- Mackie, D. M., Worth, L. T., & Asuncion, A. G. (1990). Processing of persuasive in-group mess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12.
- McGarty, C., Haslam, S. A., Hutchinson, K. J., & Turner, J. C. (1994). The effects of salient group memberships on persuasion. *Small Group Research*, 25(2), 267-293.
- Mullen, B., Brown, R., & Smith, C. (1992). Ingroup bias as a function of salience, relevance, and status: 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2), 103-122.
- Ratner, K. G., Dotsch, R., Wigboldus, D. H., van Knippenberg, A., & Amodio, D. M. (2014). Visualizing minimal ingroup and outgroup faces: implications for impressions,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6), 897.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33(47), 74.
- Terry, D. J., Hogg, M. A., & White, K. M. (199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self identity, social identity and group norm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3), 225-244.
- Trepte, S. (2006). Social identity theory. *Psychology of entertainment*, 255, 271.
- Wilder, D. A. (1990). Some determinants of the persuasive power of in-groups and out-group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attribution of indepen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02.
- Wyer, N. A. (2010). Selective self-categorization: Meaningful categorization and the in-group persuasion effec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0(5), 452-470.

1 차원고접수 : 2018. 01. 12.

수정원고접수 : 2018. 02. 25.

최종게재결정 : 2018. 02. 26.

## **Inducing Favorable Attitude Towards Affirmative Action Policy: Focusing On The Relevance Of In-Group Norm Information**

**Jee-Soo Shim**

**Hai-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persuasive effect of the in-group norm would be stronger when the persuasion topic was relevant to the in-group category than when it was not. In Study1, both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read an article about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for the promotion of women, after which they received an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ir in-group (i.e., Male In-group vs. Female In-group vs. College Students In-group) showed either favorable or neutral attitude toward the issue. As expected,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favorable norm information of the gender in-group was more influential than the favorable norm information of the college students in-group. However, the stronger persuasion effect of the norm information of the gender in-group was limited only to the male participants. In Study2, we attempted to replicate the stronger persuasion effect of the relevant in-group category to the persuasion topic shown in Study 1, this time using the College Student Category as the key category. More specifically, participants read an article about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for the permission of the minority group members to universities, and afterwards they received an normative in-group (i.e., Male In-group, Female In-group or College Students In-group) information, showing either favorable or neutral attitude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s hypothesized, the participants who were provided with the in-group normative information of university students changed their attitudes more than those who were presented with the in-group normative information of gender in-group. This finding replicated the results in Study1,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the relevance of the persuasion topic to the in-group category in using the normative information of the in-group in the persuasion context for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group persuasion effect, Affirmative action, Topic Relevance

부 록

1. 연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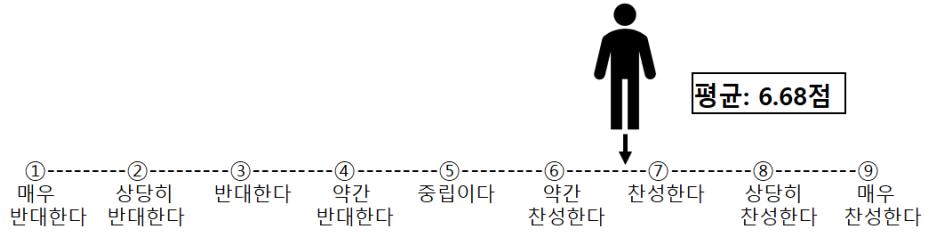


도표 1. 연구 1에서 사용된 남성 찬성 조건의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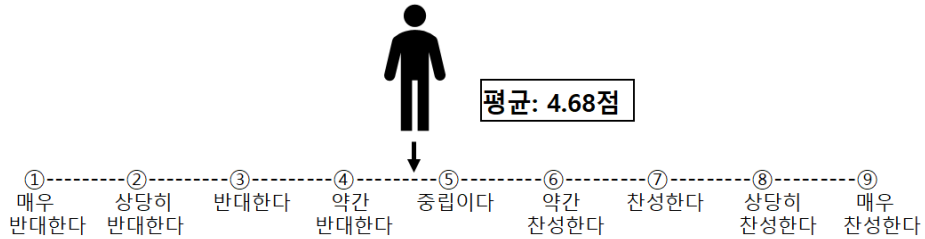


도표 2. 연구 1에서 사용된 남성 중립 조건의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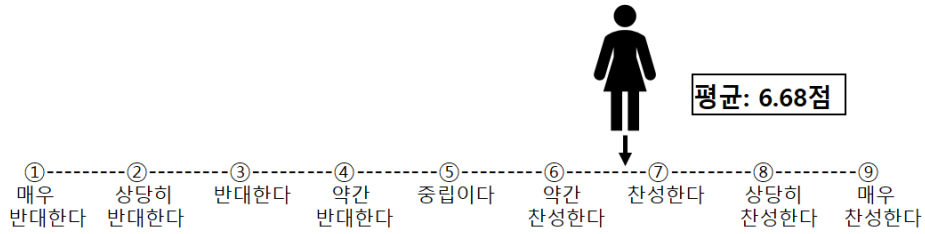


도표 3. 연구 1에서 사용된 여성 찬성 조건의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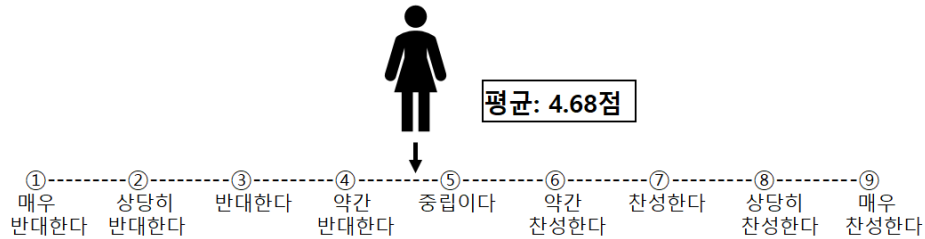


도표 4. 연구 1에서 사용된 여성 중립 조건의 도표

부 록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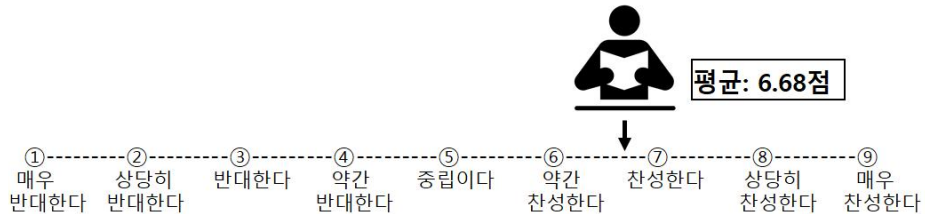


도표 5. 연구 1에서 사용된 대학생 찬성 조건의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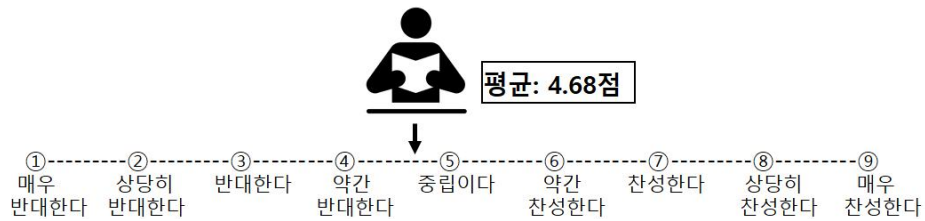


도표 6. 연구 1에서 사용된 대학생 중립 조건의 도표

2. 연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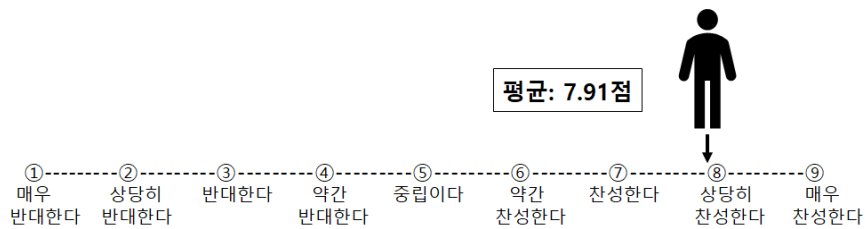


도표 7. 연구 2에서 사용된 남성 찬성 조건의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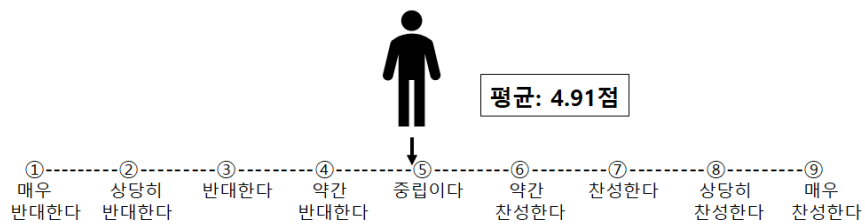


도표 8. 연구 2에서 사용된 남성 중립 조건의 도표

\*\* 나머지는 연구1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하였음.